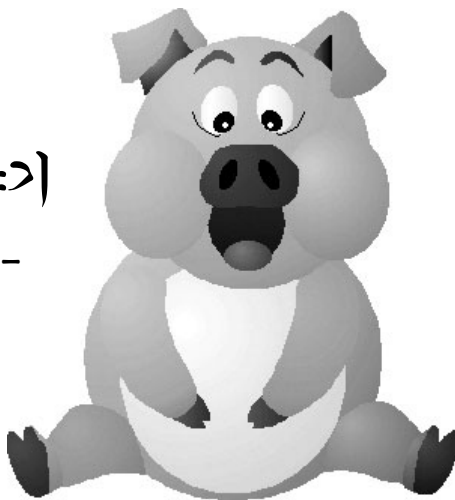


정해년(丁亥年) 돼지띠 이야기

-욕심 많으나 다산과 재운의 상징-



강 욱 / 자유기고가

한국인은 띠를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띠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띠는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전통관념 중의 하나로 각기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한 자신의 모습이다.

새해는 정해년(丁亥年) 돼지띠의 해이다. 돼지는 포유류로서 멧돼지과에 딸린 가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품종은 약 1,000여 종에 달한다. 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는 10분에서 15분 사이로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낳기 때문에 다산(多産) 동물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12지(支)상과 돼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년 열 두달 중 돼지는 10월에 해당된다. 하루의 시간에서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키며 이 때를 해(亥)시라 한다. 또

한 방위로는 서북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행상 돼지는 물(水)과 관계가 있으며 물의 속성상 만물을 소생시키고 복을 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국인의 돼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할까? 그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주는 밥찌꺼기를 불평 없이 먹어대고 그 먹는 모습이 너무 게걸스런 것 같아 사람들은 욕심꾸러기의 대명사로 돼지를 꼽는다. 어쩌면 착하기만 한 그에게는 그것같이 불만인 것도 없을 것이다. 실상 대부분의 동물치고 게걸스럽게 먹지 않는 동물이 없다.

돼지는 먹는 욕심 외엔 별로 욕심이 없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잡식동물이다. 그러면서도 강하게 자라난다. 열심히 먹기 때문에 살이 찌서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주식으로 대용되고 있다. 주지

하다시피 신께 제사를 올릴 때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돼지이다. 이것은 예부터 돼지를 신성한 동물의 상징으로 여겨왔음을 말해준다. 아마도 죽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동물은 돼지밖에 없을 것이다.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10세 때까지 돼지라고 부른다. 돼지는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새끼를 여러 마리 한꺼번에 낳기 때문이다. 순진, 명랑, 다산 등의 의미가 돼지띠의 운세와 관련이 있다.

돼지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진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속을 벗겨 보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다. 돼지띠들은 남과 큰 다툼이 없다. 남의 감정을 돋우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꺼려한다. 인내심을 바탕으로 잘 참기 때문이다.

물의 성질을 지닌 돼지띠생 남자들은 대체로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는 당찬 성격이다. 한편 자신이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편이고, 설사 상대방 얘기가 틀렸다 해도 모질게 질타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니 때로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위험도 있다.

대체로 돼지띠생들은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젊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성실히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만년(晩年)에는 젊었을 때 쌓았던 실력과 인맥, 또는 재산에 의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하지만 타고난 강정(強精) 때문에 충돌이 잦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돼지띠의 여성은 물의 성질인 음(陰)과 여성으로서의 음(陰)이 서로 작용을 하다 보니 거친 면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일을 수행하면 끝까지 철저하게 하는데 이 때 적당히 타협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선적인 면이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 단점으로 꼽힌다.

한편 돼지띠 여성은 자상한 엄마로써 가정에 충실하나 이것이 지나쳐 남편과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칫 방종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딘 듯 하면서도 천성적으로 지닌 독심으로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이를 바로 헤쳐 나간다.

중국인들이 보는 돼지띠의 성격도 게으름은 있지만 역시 본성이 순진하고 명랑하다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사귀기가 극히 아름다우며 한 번 사귀면 그 사람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특히 연인들 사이에선 한 번 애정을 주면 잘 바꾸지 않는 성격이 있다.

돼지띠는 항시 위에서 복성(福星)이 높이 비취 주어서 12지 중에서 재운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양띠나 토끼띠가 좋고 호랑이띠와 짝하면 길흉이 교차한다. 그 외 쥐, 소, 용, 말, 닭, 개띠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뱀띠와 원숭이띠와는 화합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재치와 교활함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이 꼭 맞는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대체로 동물들의 속성에서 비롯된 얘기들이다.

‘삼국사기’ 유리왕 19년조에 보면 일찍부터 돼지는 희생물로 국가의 신성한 제를 올릴 때 바쳐졌음을 알 수 있다. 민간 풍속에서도 산신에게 제를 올릴 때는 대체로 돼지를 잡고 재앙을 물렸던 것이다. 요즘 우리의 경우도 제사를 지낼 때는 으레 시루떡을 찜되 반드시 팔고물이 섞인 붉은 고사떡을 찜어 돼지와 함께 신에게 바친다. 적색이란 재앙을 막는 색깔로 인식되었고 돼지는 병과 화재를 없애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돼지와 관련된 것으로 꿈 얘기가 많다. 꿈 중의 가장 좋은 꿈은 역시 용꿈과 더불어 돼지꿈이다. 높은 벼슬을 원하는 것이 용꿈이라면 돼지꿈은 벼슬보다 격이 낮은 재산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속에서 돼지를 보았다면 왠지 기분이 좋고, 다음날엔 무언가 큰 일이 근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돼지꿈을 꾸고 복권을 샀더니 당첨이 됐다는가 돼지꿈을 꿔더니 왕재수가 있다는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돼지꿈도 무조건 꿈에 돼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돼지가 꿈에 나타나되 반드시 집으로 끌고 들어와야 좋다는 것이다. 들어오다 말고 집 앞에서 어물쩍하면 꿈을 꾸나마나 라는 것이다. 꿈속의 돼지를 확실히 손아귀에 쥐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돼지와 관계되는 한자 성어(成語)를 살펴보면 돼지의 속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내닫는 것을 보고 저돌적(猪突的)이라는 표현을 쓴다. 돼지의 우매함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입이 뾰족하게 생겼으면 돼지 입 같다고 놀려댄다. 이는 예쁘지 않은 돼지 입의 모양을 보고 빗댄 말이다. 또한 더럽고 지저분한 자리를 비유할 때는 으레 돼지울간 같다고 얘기한다. 이는 깨끗이 못한 돼지우리를 역시 빗댄 말이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돼지족발은 예부터 훌륭한 안주로 등장했던 것이 사실인 듯 돈제우주(豚蹄盃酒)라는 표현도 있다. 글자 그대로 돼지의 발굽과 한 잔의 술을 의미한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민족처럼 돼지 족을 맛있게 먹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것이다.

돼지는 게으르고 욕심꾸러기로 상징되지만 복성과 재물이 따르는 행운도 있다. 새해 돼지해를 맞아 풍요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